

희망세상 (2007년 2월호 / 53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7년 2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미국의 시민교육이 부럽다.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지속적이며, 수준 높은 교육 자료를 현장에 공급하고, 민간 차원의 기부와 참여 역시 활발하여 그 물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이다.

여기서는 초·중·고등학생용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작하고 있는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가 만든 프로그램 중 「민주주의의 기초」의 구성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일상 속의 민주주의를 터득한다

다음은 사생활 보호권과 관련이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은가?

1. 알렉스는 여자친구와의 통화 내용을 동생이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다
2. 캐롤로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회사의 사장님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초 -Privacy」 중학교 단계에 등장하는 예제이다.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싹튼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건져올릴 줄 아는 시민은 다른 이의 사소한 권리도 존중할 것이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윤리 교육이 아닌,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을 끊임없이 되짚고 옳은가를 거듭 묻고 반성할 때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의 품성을 키울 수 있다.

정해진 답은 없으며 가치는 충돌한다

다음 예제는 사생활 보호권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1. 중세 유럽 사람들은 길가의 아무 곳에서도 배변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
2. 랜디는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없어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한다. 그러나 새런은 말하고 싶지 않은 혼자만의 비밀 몇 가지를 갖고 있다.
3.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얼굴에 베일을 덮고 온 몸을 옷으로 감싼다.
4.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도와야 할지 갈등이 된다.

사생활 보호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치인가? 상황에 따라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는가?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된 질문거리 중 하나이다. 다양한 가치를 동일할 선상에서 고민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분



석표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는 개인의 몫이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이든 가능하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민주주의의 기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석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지적인 도구(intellectual tool)'라 명명된 이 표의 왼쪽에는 문제 해결의 순서와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질문의 형태로 적혀있고 오른쪽 빈 칸에 학생들이 답을 작성한다.

이것은 문제의 분석적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다음 표의 내용은 교정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 중 2번째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에 관한 분석'이다. 첫 번째 분류 후, 다시 두 번에 걸쳐 하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우 작고 사소한 범주에서부터 사고를 차근차근 확장할

교정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고려해야 할 사항	하위 내용
2. 위반이나 침해 를 일으킨 사람에 관한 분석	(1) 그 사람의 정신상태는 어떠했는가?
	a. 의도를 품고 행동하였는가?
	b.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였는가?
	c.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는가?
	d.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가?
	e. 통제력이나 판단력이 있었는가?
	f. 그렇게 행동할 의무나 책임이 있었는가?
	g. 다른 중요한 가치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였는가?
	(2) 그 사람의 과거 행동 중에서 판결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그 사람의 특징 중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4) 그 사람이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후에 어떤 감정을 표현했는가?	
(5)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논리적으로 사안에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분석적 이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입장이 자연적으로 도출된다. 학생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지지하고 타인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이 분석표를 따라가며 사고함으로써 쉽게 찾을 수 있다.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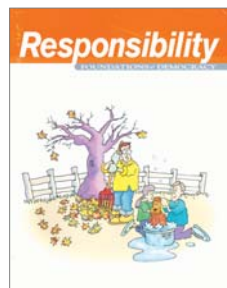
역할극을 통해 철저적 민주주의를 체득한다

「민주주의의 기초-Justice」의 분배적 정의 부분 중 ‘여러분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을 어떻게 선출하나요?’ 라는 단원에서는, 주 교육부로부터 음악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 프로그램에 어떤 학생을 참여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학교 청문회 역할극을 벌이도록 한다.

학급은 ① 학교 교장선생님과 참모진 ② 교육의 형평성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 모임 ③ 최상의 음악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④ 파핑톤 학교 의회로 나뉘게 되고 각각 토론 준비, 토론 수행, 의사결정이라는 역할을 맡는다.

역할극에서 학생들은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고 그에 걸맞는 입장을 취하며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성이 함양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르는 법을 몸에 익힌다.

교과서를 포함하여 한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이처럼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줄 수 있는 교재를 찾기란 어렵다. 토론이나 역할극을 수준높은 수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까닭에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원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적용학습’ 단계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실에 초대하여 인터뷰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지역 사회의 사서, 변호사, 판사,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 직업인들과 학교의 학생대표나 임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교실이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바깥과 단절되고 고립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연령·직업·종교·인종의 사람들과 사회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폐쇄적인 학교풍토, 교육 활동을 학교의 문제로만 방치하는 지역 풍토와 상반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미국의 것과 달라야 한다.

세계의 모든 변호사가운데 70%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의 일인당 변호사수는 일본의 25배, 영국의 3.5배, 독일의 2.5배라고 한다. 조지프 캠벨(J. Campbell)은 이러한 법조인의 숫자를 두고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서로 - 피고용인들이 사장에게, 형제와 자매가 서로 - 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속에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각박하고 몰인정하게 느껴지는 미국적 사고방식이 스며있다.

공동의 합의를 산출하는 과정보다는 개인의 권리 보호에 방점을 찍는 시민교육의 방향이 결과적으로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미국을 만든 것일 수도 있



다. 또한, 이리저러한 가치를 선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모두 열어두는 것이 자칫 공동체의 보호와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 개인들의 몰락을 방치하고, 그에 대한 책임 전부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기제일 수 있다.

미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초」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더 많이 참고해야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보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과 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있는가? 스스로 시민교육의 중심(Center for Civic Education)이 되고자하는 마음이.

글 양설

경기도 성남여자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전국사회교사모임 사회참여분과 활동 중. 지역 축제 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수업, 진지 만들기를 통해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수업 등을 하고 싶은 희망이 있음.